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율법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조절하여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물질적으로는 지켰다 할지 모르나, 율법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하여 실제로 율법이 자신을 죽음으로 저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고, 자신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그와 함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그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자주 행하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나, 실제로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마 26:41) 와 같은,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항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또한 내 영혼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통곡을 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살면서 승리의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그의 생활을 성령님께서 조절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면, 그것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율법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인 면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간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것이 곧 간음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내나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책에 사로 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8:1)

이 성경구절은 어떤 구절보다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해를 살아 오면서 나의 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항상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지난주의 실패를 항상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할 것이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느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저주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님을 좇아 사는 사람에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8:2)

내 속에서 역사하는 새로운 다른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나의 법을 돌 판에 더 이상 새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 판에 나의 법을 새길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판에 기록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받습니다. 그를 위한 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봉사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나의 마음에 새겨 두시고,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까지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갑자기 우리의 소원도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8:3상)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나는 항상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가진 자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8:3하)

모세의 율법을 내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8:4)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8:5)

사람은 낮은 삼위일체인 몸과 마음과 영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혼과 동의어입니다. 곧 사람의 의식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무엇을 하게하든지 그 의식의 조절에 따라 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몸의 욕구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몸만 의식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육체에 관련된 것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새로운 음식의 조리법이나, 아니면 아주 맛있는 새로 나온 후식과 같은 것이나, 술이나 포도주나, 성적인 것과 같은 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의 마음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욕구에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영이 그의 생활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영적인 일 어떻게 하면 주를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화는 영적인 일에 관해서 항상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육체의 욕심의 요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의식은 있지만, 동물은 육신의 욕구에 따라 그 의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의 욕구에 따라 사는 자들은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왜 오늘날 인본주의 자들이 동물세계에 자신들을 관련 시키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주위를 살펴보고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원숭이를 보십시오. 그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뿐입니다. 그의 큰 관심사는 먹는 일, 생식하는 일 등 나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군요. 아마 내가 저 원숭이 하고 친척 관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그는 성령님을 좇아 사는 사람이 되어 자신이 동물과 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척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타락하기 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좇아 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선언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8:6)

사망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성경적으로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사람의 의식이 몸으로부터 격리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뇌파가 24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의사는 말한다. 아무런 의식이 뇌에 없음을 인정하고, 생명연장의 보조 기구들을 모두 제거하고, 모니터에 어떤 반응도 없을 때는 죽은 것으로 인정하나, 만일 모니터에 조금이라도 생명의 활동이 보일 때는 다시금 보조 기구들을 연결시켜 생명지속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여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없을 때는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격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육체의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6)

영적인 생활은 영광스러운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세계보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많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만을 위한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영의 세계보다 물질의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7-8)

이 말씀은 나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을 영접하리라 생각하고, 육신의 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의 육신의 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아 드리지 않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일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영적인 존재인 그룹천사와 24 장로들이 둘러서서 찬송을 올리는데, 특히 네 그룹 천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능능하신 하나님이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십 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0-11).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삶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아직 살아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원래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은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육신 가운데 살고 육신을 쫓아 산다면, 허탈하고 갈등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뜻 있고, 성취감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선언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8:9)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실제로 성령님으로 중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요 3:4)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5-7) 고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모두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들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출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나, 영이 살아야 만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을 쫓아 살므로 육신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 속에 하나님의 거하신다면, 당신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거듭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8:10-11)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혹은 육이 아래로 내려가고, 영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삼위일체인 사람을 층으로 놓고 본다면,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이 있습니다. 자연인을 본다면, 위층이 통치하는 몸이요, 가운데층은 마음이요, 마음은 그 위치가 항상 가운데 층입니다. 몸이 위층에 있을 때는 마음이 몸의 소욕에 따라 지배를 받고 조절됩니다. 영은 죽었든지, 아니면 잠잠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생을 통해서 뒤바뀌는 일이 있겠는데, 사람이 영과 마음과 몸의 순서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마음이 영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몸은 아래층으로 쫓겨 내려가서 더 이상 통치하거나, 나를 조절치 못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몸의 소욕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8:14)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성경말씀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인 도표를 만들어 자신을 분석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생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생활을 솔직히 검토해 볼 때, ‘과연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거짓되어 절망적으로 사악합니다. 누가 알리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말씀의 구절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나를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8:15상)

이 말씀은 육신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의 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8:15하)

“아바”란 ‘아버지’란 뜻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으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8:16)

하나님은 높으신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사람은 낮은 삼위일체: 영과 혼(마음)과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영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0-24)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은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영의 순서로 몸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몸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영역에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이 죽고, 몸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함을 얻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몸의 소욕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중생한 영이 우위에서 나를 통치할 때, 나는 영과 마음과 몸의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높으신 삼위일체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께서 낮은 사람의 삼위일체의 영의 영역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산 영을 가진 나에게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의 영에게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다만 나의 영이 우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영에 의하여 지배되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영에게 증거할 때에, 나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지적인 면에서 증거하심도 아니요, 나의 몸에 증거하심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결합했을 때에,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8:17)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내가 나의 이모님이 몬테시토에 있는 어느 갑부의 집에서 가정부로 있을 때에, 그 집 주인이 유럽에 여행을 떠난 동안 한 여름을 거기서 체 사촌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집 아들 모양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일곱 개의 차고와 정렬된 희귀한 자동차를 타고, 마치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흉내도 내보곤 했습니다. 많은 흥미 있는 책들이 있어서 밤마다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장난감 전기 기타가 있어 그것을 가지고, 마구간과 수영장 주위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흥미 진진한 시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 나는 생각하기를, 어떤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당신 삼촌이 세계에서 갑부인데, 별세하면서 많은 유산을 당신을 위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몬테시토에 가서, 내가 한 여름을 보내었던 그 집을 당장 구입하여 그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만일 세계에서 제일 부자집의 유산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빛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8:18)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좇아 살기 때문에, 생활양상이 아주 달라, 우리는 세상에서 외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 6:22-23)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왕국의 영광과 멸망을 당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기쁨을 바라보고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왕국의 영광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가 많은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받고,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가치기도하고, 동족의 위험 갈의 위험 등의 긴 고생을 나열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라고 했습니다. 환란의 경한 것이-다섯번 태장으로 맞고, 세 번 돌로 침을 당하고, 성밖으로 끌어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중해에서 밤낮으로 배의 한 부분에 매달려 지났다” 고 했습니다. 경한 환란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8:19)

지금 불행히도 이러한 구절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라는 제목을 걸고, 악성적 교리를 만들고 있는 극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약 40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리가 1948년에 한번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였고, 이것이 다시금 기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라는 극단의 교리중의 하나로써 이것은 사람들의 육신에 아주 호감을 주는 교리인데, 온 세상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교리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여 그의 교회, 곧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온갖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스크바에 가서 탱크를 가리키면 쇠가 녹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모든 환자들을 일으켜서 병원이 텅텅 비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당신이 그러한 이적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다만 그 때가 오기까지 자신을 온전케 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당신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교리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을 보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글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글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8:20)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써는 완전치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 만으로는 완전치 못하니,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를 만들자”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없는 남자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동반자가 없는 남자만으로는 완전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가 온전케 되고, 동반자로서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주시고, 그의 아내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또 다른 불완전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헨리 드라몬더 박사는 그의 “자연과 초자연”이란 제목을 가진 저서에서 사람 속의 각 세포의 형질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융합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공허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허감을 주셔서, 사람이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공허를 채울 때에, 비로소 생활의 성취감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8:21)

어느날 내가 이 썩어질 옛 몸의 얽매는 것에서 자유 함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러한 영광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8:22)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죄의 저주 아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8:23)

내 몸의 구속이 이뤄질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서신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고후 5:1-2)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장차 썩어질 장막 집, 곧 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고후 5:4-6).

여기서 나타난 같은 사상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되고, 썩어질 몸에 메여 종 노릇 함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탄식하며 이러한 썩어질 몸을 가진 우리들도 구속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벗어날 때에, 우리는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 있는 사실은 바울이 이 몸을 천막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천막을 생각할 때는 이곳이 영구적인 삶의 장소로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2년 동안 지난 적이 있습니다. 천막에서 지낼 때, 천막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천막에 있을 때는 추위를 면키 위해서 석유 난로를 피우면 석유냄새를 맡아야 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구멍이 나서 거기서 찬 바람이 들어와 밤에는 아주 추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막에서 새로 지은 예배당에 들어 갔을 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딱딱한 철로 만든 의자에 앉지 않아도 되었고, 까만 아스팔트 위를 걷지 않아도 되었으며, 석유 난로에서 나는 냄새나 불타는 요란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대신 새 예배당에서는 폭신한 의자에 앉을 수 있었고, 부드러운 양탄자 위를 걸으며, 이제 다소 영구적인 집에서 안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입을 새 모델, 그리고 새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있는 천막인 나의 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천막의 실밥이 쉽게 터지기를 시작하며, 잘 찢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아주 불편합니다. 이러한 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주 탄식하며, 어서 속히 몸의 구속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 쌓여있는 콜로니 스타일의 집을 상상합니까? 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몸을 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천막에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몸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잠을 잘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게 되는 새 집은 침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8:24)

우리가 그것을 보면 현실이 되므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란 항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날을 소망하고, 그 왕국을 소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8:25-26)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나도 탄식하며,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은 나의 생활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으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양자의 명분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생활에서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항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결코 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나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수단으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한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는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기도의 주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주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8:27)

나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해야 할 때에, 예를 들어, 나의 친구 존이 여기 있는데, 현재 그의 형편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에,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오, 오, 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8:28상)

나는 이 구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할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을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마음이 상했을 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떠 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8:28하)

나는 계속해서 몇 차례 이 성경구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듯이, 당신들이 미래에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역경을 당할 때에,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의 기초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해하는 마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현명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고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불편한 곳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고,,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 간다면, 당신들은 마음에 갈등을 가지기보다 안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오, 내가 누구와 의논을 해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 하였으니, 나의 생활에 유익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부친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개스회사의 세일즈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후에 산타아나 지역에 부동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생활은 풍년일 때도 있고, 아니면 흉년일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풍성함의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집이 잘 팔릴 때는 수입이 35,000불이나 되어 돈을 잘 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그 약속이 폐기될 때는 큰 실망을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집의 매매가 다 성사된 줄 알고, 여러 가정의 지출해야 할 것을 다 갚고, 응접실 가구도 이미 사들여 왔는데,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밑창까지 떨어졌을 때, 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나의 부친은 ‘모든 것’ 이란 글을 쓴 팻말을 책상 위에 놓고 사셨습니다. 큰 집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 나의 부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팻말을 보곤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팻말을 거울에다 붙여놓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8:29)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나를 놀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놀라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은 나를 가장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셨으며,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맏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나신 분이시오, 가장 큰 분이시오, 모든 형제 중에 맏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게 되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8:30)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못한 나에게 대해서 말씀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아직 영광스럽게 된 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영광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미래에 체험하게 될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것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미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전율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내 속에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안식합니다. 나는 이미 이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8:31)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탄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이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 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떠한 지옥의 권세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결코 하나님의 적수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대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적수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상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적수가 될 수 없고, 다만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와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해 볼 때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8:32상)

이 말씀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8:32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과 같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가 아들을 고통과 경멸과 거절되는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부모가 되어 나의 자녀들이 어린 유아시기에 몸쓸 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열이 나고, 병으로 괴로워 하며,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손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어린 손녀가 오늘 밤 귀에 염증이 생겨 아파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 고통을 내가 당할 수만 있다면,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가 그 병을 대신 가져 그 어여쁜 손녀가 콧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침대에 누워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그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보다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모로써 자녀들의 고통을 볼 때에, 그 고통을 내가 당하여 그 고통이 자녀에게서 떠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기 원하는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고통을 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애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께서 다른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과 당신을 위하여 이미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난 그의 사랑은 이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고귀한지 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더 넓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8:33)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송사하리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 하겠습니까?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형제를 참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도 자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나 지은 죄와 실패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8:34상)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7-1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8:34하)

그러나 당신은 말하기를, '오,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시켰는데, 오, 내가 이러한 못된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정죄하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에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8:35)

다음 질문은 실제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8:35-36)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8:37)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보다 더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도 영광의 승리를 이미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자가 승자보다 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8:38-39)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떨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버리셨으며,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질인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기인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랑하시고, 나쁜 일을 할 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를 막론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관계없이 모든 때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위치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와 동거 동행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당신의 생활에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밀접한 사귀을 항상 갖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유산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